



KIA 양현종



SK 김광현



삼성 최형우



삼성 차우찬

막 오른 FA…120억 나온다?

두산 김재호 4년 50억 ‘스타트’

“해외 진출 타진 후 국내 협상”

양현종·김광현 등 대어들 느긋

시장 과열에 각 구단은 속앓이

두산 베어스의 유격수 김재호(31)가 2016시즌 스토브리그에 불을 붙였다. 김재호는 15일 두산과 4년 총액 50억원에 FA(자유계약 선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20억원, 연봉 6억500만원, 인센티브 4억원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김재호는 이번 FA 시장의 ‘1호 계약자’가 됐다. 김재호는 올 시즌 두산의 주장을 맡아 21년 만의 정규시즌·포스트 시즌 통합 우

승에 힘을 보탤다. 137경기에 출전해 타율 0.310(416타수 129안타), 7홈런, 69득점, 78타점을 기록한 그는 지난해에는 야구 국가대항전 프리미어 12에서 주전 유격수를 맡아 한국의 초대 우승에 함께 하는 등 알짜배기 유격수로 꼽혀왔다.

김재호가 스타트를 끊으면서 사상 첫 ‘100억 돌파’ 향한 FA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 시즌 FA 시장에 나온 선수는 김재호를 포함해 총 15명이다.

‘좌완 트리오’인 김광현(28·SK 와이번스), 양현종(28·KIA 타이거즈), 차우찬(29·삼성 라이온즈)과 함께 삼성의 ‘좌타 거포’ 최형우(33)가 최대어로 꼽힌다. 여기에 다시 한번 미국 무대에 도전하는 황재균(29·롯데 자이언츠)도 나름 대어급에서 관심을 끄는 선수다.

역대 최고액 경신이 예고되는 등 금액은 뜨겁지만 시장 상황은 아직 잠잠하다. 대어들의 거취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최대어 4인방과 함께 황재균의 눈이 일단 해외 시장에 쏠려있다.

해외 스카우트들이 이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온 가운데 차우찬과 김광현은 미국 프로야구(MLB) 사무국으로부터 신분조화 요청을 받았다.

황재균은 22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쇼케이스에 나설 예정이다. 양현종도 생각보다는 해외 시장의 반응이 뜨겁지는 않지만 우선 해외진출을 노리겠다는 입장을 KIA에 전했다. 최형우도 해외 진출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들 입장에서든 굳이 국내 시장을 우선 두드릴 필요가 없다. ‘뎀’을 쫓아 해외 시장을 노리다가 국내 잔류로 선회를 하더라

도 ‘현실’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계산이다. 오히려 해외 진출 추진은 몸값 상승을 위한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는 장기전이 예고되면서 원소속구단들은 애가 탄다.

대어들이 해외진출을 우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구단들은 일단 추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집안 단속’이 우선 목표지만 자칫하다가는 차선책까지 무산될 수 있는 복잡한 시장 상황도 머리 아프다.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시장 상황도 부담이다. 시즌 중반에 야구계에서는 이미 100억을 넘어 120억원이 언급되기도 했다.

어찌 됐든 김재호를 시작으로 FA 시장의 막이 올랐다. 스토브리그의 ‘논치 싸움’이 본격화된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정호 빅리그 복귀 연타석 홈런 못잊어”



美 피츠버그 매체, 극찬 속 2017년 기대감

“강정호가 빅리그 복귀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친 순간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나.”

미국 매체가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지난 2년을 극찬하며 2017시즌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피츠버그 구단 소식을 다루는 ‘파이리츠 브레이크다운’은 15일(이하 한국시간) ‘건강한 강정호는 피츠버그의 2017 시즌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KBO리그 넥센 히어로즈에서 뛰다 2015시즌을 앞두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강정호는 시즌 초반에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다소 고전했다. 하지만 조디머서가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강정호는 주전으로 발돋움했고, 이후 피츠버그 타선을 책임지는 강타자로 거듭났다.

2015년 7월부터 9월 18일까지 강정호는 타율 0.307, 장타율 0.530, 11홈런의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다. 9월 18일 그는 경기 중 상대 주자의 거친 슬라이딩에 왼쪽 무릎을 다치면서 수술대에 올랐다.

오랜 재활을 거쳐 232일 만인 올해 5월 7일 빅리그에 복귀했다. 복귀전은 화려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방문 경기에 6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연타석 홈런을 터뜨렸다. ‘파이리츠 브

레이크다운’은 “어떻게 잊을 수가 있나”라는 말로 당시 감격을 표현했다.

강정호는 타율 0.255(318타수 81안타) 21홈런 62타점 45득점으로 올 시즌을 마감했다. 타석당 홈런 비율은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인 5.7%에 달했다. 그만큼 홈런 생산성이 탁월했다.

이 매체는 강정호가 전력으로 공을 잡아당겨 치는 ‘풀타’가 아닌 점을 높게 평가했다. 오른손 타자인 강정호가 올 시즌 기록한 안타의 43.7%는 잡아당겨서 쳤고, 35.4%는 중량을 향했으며 20.8%는 밀어쳤다. 땅볼 비율은 지난해 49.8%에서 올해 42.3%로 감소했다.

이 매체는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경력 초기부터 강타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고 치켜세웠다.

우완·좌완 투수 상대 기록은 흥미롭다. 일반적으로 우타자는 좌투수한테 강하다. 강정호는 반대였다. 그는 올 시즌 오른손 투수를 상대로 타율 0.267, 출루율 0.354, 장타율 0.542를 기록했다. 왼손 투수를 상대로는 각각 0.209, 0.354, 0.403에 그쳤다.

두 시즌에 걸쳐 친 36홈런 중 30개는 오른손 투수를 상대로 나왔다. 통상 좌투수한테 강한 우타자의 특성을 강정호가 잘 살리면 더 뛰어난 슬러거로 거듭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내다봤다. /연합뉴스

한국 WBC 잇단 악재

이용찬·정근우 수술대…재활 2~6개월 소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대표팀이 우완 투수 이용찬(두산 베어스)에 이어 불박이 2루수 정근우(한화 이글스)까지 수술대에 올라가며 고민에 빠지게 됐다.

아직 최종 엔트리 제출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자유롭게 로스터 변경이 가능하지만, 지난 10일 최종 엔트리를 발표했던 KBO 기술위원회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두 명이나 출전 여부가 불확실해져 엔트리를 재검토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두산 구단은 KBO가 엔트리를 발표한 10일 곧바로 이용찬이 15일 오른쪽 팔꿈치 뿔조각 제거 수술을 받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우완 투수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던 대표팀은 불펜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용찬을 선발했지만, 곧바로 수술 소식이 알려지며 구단과 의사소통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까지 받았다.

여기에 15일에는 정근우의 무릎 수술 소식까지 전해졌다. 한화 구단은 “정근우가 왼쪽 무릎 반월판 연골 손상으로 22일 일본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으며, 2~3개월의 재활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만약 정근우가 WBC 대표팀에서 빠진다면 전력 손실은 더 크다. 정근우는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이후 줄곧 테이블세터로 활약했을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 12에서 대표팀 주장을 맡아 초대 우



이용찬

정근우

승을 이끄는 등 리더십을 보여줬다.

개성이 강한 ‘82년생 동갑내기’ 김태균(한화)과 이대호(전 시애틀 매리너스),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 사이에서 대표팀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힘쓰는 것도 정근우였다.

KBO는 일단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선수의 소속 구단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회복에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기술위원회에서 이용찬과 정근우의 교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이용찬과 정근우 모두 WBC 출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대표팀의 조별예선 첫 경기인 이스라엘전은 내년 3월 6일이지만, 2월 초 소집해 본격적으로 담금질에 들어간다. 팔꿈치 뿔조각을 제거한 이용찬은 회복에 최대 6개월이 걸리고, 무릎 연골이 손상된 정근우는 수술 뒤 2~3개월의 재활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저리 비커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미국프로농구(NBA) 로스앤젤레스 클리퍼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에서 브루클린 보안 보그다노비치(왼쪽)가 클리퍼스의 브랜든 배스의 수비를 피해 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저스 시거 만장일치 NL ‘올해의 신인’

타율 0.308·26홈런·72타점

오승환 3위표 1장 얻어 6위

코리 시거(2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올해의 신인으로 뽑혔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15일(이하 한국시간) 시거가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 투표 결과 1위를 차지했으며, 트레이 터너(워싱턴 내셔널스)가 2위·마에다 겐타(다저스)가 3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시거는 1위 표 30장을 독식해 150점을 얻어 만장일치로 올해의 신인을 품었다.



작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27경기만 소화해 신인 자격을 유지한 시거는 올 시즌 주전 유격수로 활약하며 157경기에서 타율 0.308, 26홈런, 72타점을 기록했다. 터너는 42점, 마에다는 37점을 얻었다.

/연합뉴스



29세 감독의 리더십 유럽축구 흔들다

분데스리가 호펜하임 나겔스만 감독 부임 후

하위권 맴돌던 팀 시즌 무패행진 3위로 경중

작년 10월,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호펜하임은 파격적인 소식을 알렸다. 1987년생의 어린 지도자, 율리안 나겔스만(29) 감독을 신임 사령탑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이었다. 분데스리가 역사상 가장 어린 감독이 나오는 순간이었다.

현지 언론은 호펜하임의 결정에 조롱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일부에선 “무모한 결정”이라고 표현했고, 몇몇 매체는 “축구 팬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경영진의 실책”이라고 보도했다.

나겔스만 감독은 나이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이력도 초라했다. 그는 20세 때 무릎 부상으로 일찌감치 선수의 꿈을 접었고 지도자로도 이렇다 할 경험을 쌓지 못했다. 19세 이하 호펜하임 유스팀을 맡은 게 그나마 눈에 띄는 경력이었다. 그러나 나겔스만 감독은 부임 이후 강력한 리더십으로 호펜하임을 뜬고쳤다.

유스 팀에서 눈여겨보던 젊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중용했고, 팀워크에 초점을 맞추며 팀을 만들었다. 케렘 데미르바이

(23), 루카스 루프(25) 등 여러 팀을 떠돌던 젊은 선수들을 영입해 주전 선수로 기용했다. 새로 합류한 산드로 와그너(28)는 올 시즌 7경기에서 4골을 넣으며 펄펄 날아다니고 있다.

대신 본인의 철학과 맞지 않은 선수들은 전력에서 배제했다. 2년 연속 코파 아메리카 득점왕을 차지한 질레 대표팀 공격수 에두아르도 바르가스(27)가 벤치 신세를 질정다.

나겔스만 감독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연합뉴스